

[2015~2020 어문 규정 관련 기출문제 모음]

1.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이 맞는 것은?

- ① 상견례[상견례]                      ② 훑자[훑짜]
- ③ 폭발음[폭바름]                    ④ 뛰어[뛰여]

2.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름에는 달이 밝다. [박따]
- ②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등불]
- ③ 음식이 앞마당에 차려져 있다. [암마당]
- ④ 여기저기 다니며 막일이라도 하자. [막길]

3. ㉠~㉣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같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된소리되기 또는 경음화라고 한다. 된소리되기의 종류로는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어간 받침 ‘ㄴ, ㄹ’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있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이 있다.

- ① ㉠ : 잡고 → [잡꼬]                      ② ㉡ : 손재주 → [손쨌주]
- ③ ㉢ : 먹을 것 → [머글쨌]                ④ ㉣ : 갈등 → [갈똥]

4.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 ① 울산 - Ulsan                            ② 설악 - Seorak
- ③ 종로 - Jongno                            ④ 호법 - Hobeob

5.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합덕 Habdeok                            ② 학여울 hageoul
- ③ 집현전 Jiphyeonjeon                    ④ 축석루 Choksseongnu

6.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아침이다.  
→ ‘한 해’는 띄어 쓴다.
- ② 그의 바람대로 소방 공무원이 되었다.  
→ ‘바람’으로 고친다.
- ③ 년초에는 인사로 바쁜 일이 많다.  
→ 두음법칙에 따라 ‘연초’로 쓴다.
- ④ 그가 무엇을 할 지 알 수 없다.  
→ ‘할지’는 붙여 쓴다.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웬 남자가 내게 말을 붙였다.
- ② 바지의 헤어진 부분에 짜깁기를 하다.
- ③ 약을 먹은 효과가 급세 나타났다.
- ④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8. 밑줄 친 어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나에게도 손을 별렸다.
- ②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혔다.
- ③ 이따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 ④ 과녁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

9. 다음 편지글에서 고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머니께  
할머니, 작년 여름에 함께 장터에 가서 갈치줄임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만두국과 떡볶기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항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 방학 때 백요.

- ① 갈치줄임 → 갈치조림                      ② 만두국 → 만두국
- ③ 떡볶기 → 떡볶이                            ④ 백요 → 뽕요

10.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문장은?

- ①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요,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 ②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요, 친구이다.
- ③ 늦지 않게 빨리 오시오.
- ④ 이것은 책이 아니요.

11.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보기>의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자 료 >

**[한글 맞춤법]**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보 기 >

-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 ㄴ. 한국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12.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 ① 내가V믿을V것은V오직V성실함뿐이다.
- ② 그녀는V사실을V아는V대로V설명했다.
- ③ 이V약초는V감기를V낫게V하는데V쓰인다.
- ④ 사람들은V그를V자기밖에V모른다고V놀렸다.

13.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afe - 카페                                      ② vision - 비전
- ③ jazz - 재즈                                        ④ supermarket - 수퍼마켓

## [ 해설지 ]

## 1. ④

현실 발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뛰어'는 [뛰어/뛰여] 모두 발음이 가능하다.

## [오답피하기]

## ① 상견례[상견네] &lt;고쳐야 함. [상견네]가 맞음.&gt;

[상견네]가 맞다. 일단 '네'는 기본적으로 'ㄴ'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음화(ㄴ이 ㄴ으로 바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발음을 확인해야 한다. 예외를 외워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짝센 단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것!

## ② 홀재[홀재] &lt;고쳐야 함. [홀재]가 맞음.&gt;

겹받침은 'ㄹ, ㅁ, ㅂ'이 아니면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즉, [홀]이 아니라 [홀]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간 받침이 'ㅁ, ㅂ'일 경우 뒤의 소리 'ㄱ, ㄷ, ㅌ, ㅈ'는 된소리로 발음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홀재]가 맞다.

## ③ 폭발음[폭바름] &lt;고쳐야 함. [폭빠름]이 맞음.&gt;

받침이 'ㄱ, ㄷ, ㅌ'는 그 다음의 'ㄱ, ㄷ, ㅌ, ㅈ'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규칙이다. 따라서 [폭빠름]으로 읽어야 올바르다. 해당 단어도 꽤 어려운 단어에 속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2. ④

'말일'은 [망닐]이라고 읽어야 한다. 연음된 [마길]은 잘못된 발음이다.

## [오답피하기]

## ① 뱃대[뱃대]

겹받침 'ㄹ'은 'ㄷ'라는 자음 앞에서는 [ㄱ]으로 읽어야 한다. 다음으로 뒤의 'ㄱ, ㄷ, ㅌ, ㅈ'는 된소리로 읽어야 하므로, [뱃대]가 맞다.

## ② 등불[등불]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경음화가 된 경우이다. 따라서 [등뽕]로 발음이 되어야 한다.

## ③ 앞마당[앞마당]

먼저 'ㅍ'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으로 발음이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ㄹ' 앞에서는 비음화가 되므로 [앞마당]으로 발음해야 한다.

## 3. ①

'ㅂ' 뒤에 'ㄱ'이 [ㄱ]으로 발음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② '손재주'는 합성어이자,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손재주]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어간 받침 'ㄴ, ㄹ'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③ '떡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다음에 경음화가 제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예시라고 볼 수 없다.

④ '갈등'은 한자어이며, 'ㄹ'로 끝난 한자어 다음에 'ㄷ'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 예로 보아야 한다.

## 4. ④

[호:뱌]으로 발음되나 'ㅂ'이 2개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초성 'ㅂ'은 'b'로, 중성 'ㅂ'은 'p'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Hobeop이 맞다.

## [오답피하기]

## ① 울산 - Ulsan

[울싼]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는 로마자 표기로 쓰지 않는다.

## ② 설악 - Seorak

[서락]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ㄹ은 '말음'이 아니라 '초성'으로 보고 'r'을 적어야 한다.

## ③ 종로 - Jongro

[종노]로 발음되기 때문에, ㄹ이 아니라 'ㄴ'인 n으로 적어야 한다.

## 5. ③

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주의 1) 명사에서 ㅎ은 무조건 'h'로 적어야 한다. (축약금지)

(주의 2) 받침으로 'ㅂ'은 p라 적어야 한다.

## [오답피하기]

## ① 함덕 [함떡] Hapdeok

(주의 1) 된소리는 로마자에 표기하지 않는다.

(주의 2) 받침으로 'ㅂ'은 p라 적어야 한다.

## ② 학여울 [항녀울] Hangnyeoul

(주의 1) 학여울은 음운 변동이 있는 단어라 확실히 알 것!

(주의 2) 고유 명사는 초반에 대문자로 써야 한다.

## ④ 축석루 [축생누] Chokseongnu

(주의 1) 된소리는 로마자에 표기하지 않는다.

(주의 2) 받침으로 'ㄱ'은 k라 적어야 한다.

## 6. ②

'바라다'에서 왔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적어야 올바르다.

## [오답피하기]

① '한 해, 두 해, 세 해'를 말하고 싶은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처음 글자를 두음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초'라고 써야 한다.

④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기간'이나 '날짜'와 관련될 때이다. 해당 문장은 '기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7. ①

웬(○)/웬(x)/웬지(x)/왜인지(=웬지)(○)

- 웬 : 어찌 된
- 웬지 :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답피하기]

② 짜깁기(○)/짜집기(x)

- 짜깁기 :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③ 금세(○) / 금새(○, 다만 의미가 다름.)

- 금세 :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금시에의 예를 생각하면, 금세라고 잘못 쓰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
- 금새 :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  
(금새를 활용한 문장을 본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잘 쓰지 않는 단어.)

④ 오래만(○) / 오래간만(○) / 오랫동안(x) / 오랫동안(○)

- 오래만 : '오래간만'의 준말
- 오래간만 : 어떤 일이 있을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
- 오랫동안 : 시간상으로 썩 긴 동안.

8. ④

-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가 적절하다.  
(의미) 물체를 쓰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 또는 그렇게 하여 닿음을 입게 하다. '맞다'의 사동사.  
(예) 화살을 적장의 어깨에 맞히다.

[오답피하기]

① '벌리다'가 맞다.

- (의미) 우르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예) 아이는 두 손을 벌려 과자를 조심스레 받았다.

② '부딪치다'가 맞다.

- (의미)[...에/에게 (...을)][(...과)][(...과) ...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예) 한눈을 팔다가 진보대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딪히다'는 피동표현이다. 만약 해당 문장이 맞다면, '가로수가 자동차를 부딪다.'가 되어야 하는데, 의인화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따가'가 맞다.

- (의미) 조금 지난 뒤에.  
(예) 이따가 갈게.

9. ④

- '볶어요'의 준말은 '볶요'이다. 따라서 '볶요'가 아니라 '볶요'가 맞다.

[오답피하기]

- ① '졸입'이 아니라 '조리다'에서 왔기 때문에 '조림'으로 써야 한다.
- ② 만두와 국이 결합할 때 사잇시옷을 써야 하므로 '만두국'이 맞다. '만두'는 한자어이고 '국'은 우리말이다.
- ③ '떡볶이'라는 명사를 쓸 때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기'가 아니라 '-이'를 써야 한다.

10. ②

-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줄 때는 '-이요'를 써야 한다.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반점이 아닌 온점(.)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는 '-이요'를 써야 한다. 아주 잘 쓴 문장이다.
- ③, ④ 모두 종결어미 '-오'를 적절하게 잘 썼다.

11. ②

- ㄱ. 당신이V문득V나를V알아볼V때까지.  
이때 '때'는 명사로,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까지'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ㄴ. 돈을V많이V모아서V멋진V집V한V채를V샀다.  
단위성 의존 명사인 '채' 앞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 ㄴ. '한국인만큼'은 붙여 써야 한다. 이때 '만큼'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 ㄷ. '꽃입니다'는 붙여 써야 한다. 이때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12. ③

- '하는데'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하느'과 '데'를 띄어야 한다.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는데'라는 어미와 차이가 있다.
- 는데 :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오답피하기]

- ① '갓'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을 띄어야 한다. '성실함'이란 명사는 없지만, '뿐'이 의존 명사로 쓰려면 앞의 조건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을'이 붙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대로'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을 띄어야 한다.
- ④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3. ③

- jazz : '제즈'로 쓸 것 같지만, '재즈'로 써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상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오답피하기]

- ① cafe : 카페, 외래어 표기법상, 된소리로 쓰는 것은 대체로 지양하는 편이다.
- ② vision : 비전, 해당 단어는 외우는 것이 낫다.
-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 해당 단어는 외우는 것이 낫다.

# 1. 고전 갈래

## THEME 1 ' 한국 문학의 특징

### 1. 한국 문학의 미의식

- ① 송고미: 생활보다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함.
- ② 우아미: 개성을 지니면서도 조화를 이룸.
- ③ 비장미: 거짓된 현실, 억압된 사회, 부당한 지배층에 항거함.
- ④ 골계미: 풍자와 해학을 통해 지배층의 관념적 가치를 부정함.

### 2. 한국 문학의 갈래

갈래	특징	변형 갈래
서정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가 독백적인 어조로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을 주관적으로 노래하는 양식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일부), 한시, 신체시, 현대시 등
세계의 자아화		
서사	서술자가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양식	설화(신화, 전설, 민담), 가전체(일부), 신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 등
자아와 세계의 대결, 갈등 (서술자 ○)		
극	서술자의 중개 없이 인물들의 행위와 대화로 사건을 진행하는 양식. 무대를 통해 재현하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가면극, 인형극, 창극, 신파극, 현대극 등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갈등 (서술자 ×)		
교술	실제의 경험이나 생각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달하는 양식. 주제 전달을 중심으로 한다.	경기체가, 수필, 편지, 기행문 등 (가사, 가전체는 일부)
자아의 세계화		

## THEME 2 ' 한국 문학의 흐름

### 1. 운문

- ① 고대 (고대 가요)
- ② 신라시대 (향가, 한시)
- ③ 고려시대 (고려 가요(=고려 속요), 경기체가, 한시, 시조)
- ④ 조선시대 (악장, 시조, 가사, 민요, 잡가)

### 2. 산문

- ① 고대 (신화, 전설, 민담)
- ② 고려시대 (패관 문학, 가전체, 한문학 발달)
- ③ 조선시대 (한문 소설, 국문 소설, 고전 수필, 판소리, 민속극, 수필, 한문학 등)

## THEME 3 '고대 가요(시가)

## 1. 고대 가요(시가)의 개념

- ①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을 노래한 시가.
- ② 원래는 구비 전승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 ③ 고대 가요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종합 예술에서 출발하여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로 분리 발전되었다.
- ④ 고대 가요는 대부분 배경 설화를 지니고 있다.

## 2. 고대 가요(시가) 주요 작품

작품	작자	성격	내용 및 특징
공무도하가	백수 광부의 처	개인적 서정적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노래. 악공명은 '공후인'.
구지가	가야의 구간 등	집단적 주술적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노래. 일명 '영신군가'라고도 한다.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	개인적 서정적	피꼬리에 견주어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가.
정읍사	행상인의 처	개인적 서정적	행상 간간 남편을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을 노래한 백제의 시가. 한글로 표기된 시가.
해가	강릉 백성들	집단적 주술적	용에게 납치된 수로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부른 주술적인 노래.

- ① 해동역사: <공무도하가>
- ② 삼국사기: <황조가>
- ③ 삼국유사: <구지가>, <해가>
- ④ 악학궤범: <정읍사>

## ★ 대표 작품

펼 펼 나는 저 피꼬리는	翩翩黃鳥(편편황조)
쌍쌍이 즐기는데,	雌雄相依(자웅상의)
외로운 이 내 몸은	念我之獨(념아지독)
누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수기여귀)
	- 유리왕, <황조가>

## THEME 4 '향가

## 1. 향가의 개념

향찰(鄉札)로 기록한 신라 때의 노래. 민요적·불교적인 내용으로, 작가층은 승려·귀족·평민에 걸쳐 다양하다.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로 모두 25수가 전한다.

## 2. 향가의 표기 형식

- ① 향찰(鄉札):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 ② 이두(吏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향찰, 구결 및 삼국 시대의 고유 명사 표기 따위의 한자 차용 표기법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나,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 ③ 구결(口訣):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讀誦)을 위하여 각 구절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隱(은, 는)', '伊(이)' 따위와 같이 한자를 쓰기도 하였지만, '이(伊의 한 부)', 'ㄱ(厓의 한 부)' 따위와 같이 한자의 일부를 떼어 쓰기도 하였다.

## 3. 향가의 다른 명칭

- ① 사뇌가(주로 10구체 향가를 가리킨다.)
- ② 도술가

## 4. 향가의 형식

- ① 4구체: 민요적 성격
- ② 8구체: 지방에서 유행
- ③ 10구체: 가장 정제된 일반적인 형태, 낙구에 '아으' 등의 감탄사를 상투적으로 배치. (후에 시조 종장 첫구에 흔히 나타남.)

## 5. 향가의 진영

- ① 고려 제16대 예종이 지은 '도이장가'.
- ②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

## 6. 향가의 의의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
- ② 최초의 국문시가.
- ③ 개인 창작시.

## 7. 향가의 내용

- ① 주술적 내용: <혜성가>, <도술가>, <처용가>, <원가>
- ② 불교적 내용: <원왕생가>, <천수대비가>, <제망매가>
- ③ 유교적 내용: <안민가>
- ④ 노동과 관련된 내용: <풍요>

# 1. 고전 갈래

## 8. 향가 수록 문헌

- ① 삼국유사: 14수
- ② 균여전: 11수
- ③ 삼대목: 향가집이지만 완전체로는 전해지지 않음.

## 9. 현전하는 향가 작품

### 1) 4구체: 4작품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서동요 (薯童謠)	백제 무왕	진평왕 (6세기)	서동이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기 위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동요.
풍요 (風謠)	만성 남녀	선덕여왕 (7세기)	양지가 영묘사 장육존상을 주조할 때 남녀들이 진흙을 나르며 불렀다는 노래.
헌화가 (獻花歌)	어느 노인	성덕왕 (8세기)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사랑의 노래.
도솔가 (兜率歌)	월명사	경덕왕 (760)	두 해가 나타난 괴변을 없애기 위해 부른 산화 공덕의 노래.

### 2) 8구체: 2작품

작품	작자	연대	내용
모죽지랑가 (慕竹旨郎歌)	득오	효소왕 (7세기 말)	죽지랑이 죽자 그에게 은혜를 입은 득오가 그를 사모하여 부른 노래.
처용가 (處容歌)	처용	현강왕 (879)	아내를 범한 역신에게 관용을 베풀어 감복시킨 주술적인 노래.

### 3) 10구체: 9작품

작품	작자	연대	내용
혜성가 (彗星歌)	용천사	진평왕 (6~7세기)	내침한 왜구와 큰 별을 범한 혜성을 물리쳤다는 축사의 노래.
원왕생가 (願往生歌)	광덕	문무왕 (7세기)	죽음을 통해 극락왕생을 바라는 불교적 신앙의 노래.
원가(怨歌)	신충	효성왕 (737)	효성왕이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잊자,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다는 주가.
제망매가 (祭亡妹歌)	월명사	경덕왕 (8세기)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재를 올리며 실천적 구도를 다짐하는 노래.
안민가 (安民歌)	충담사	경덕왕 (8세기)	왕의 요청으로 군(君), 신(臣), 민(民)의 본분을 설파한 교훈적인 성격의 노래.
찬기파랑가 (讚耆婆郎歌)	충담사	경덕왕 (8세기)	기파랑을 찬양하여 부른 추모의 노래.
천수대비가 (千手大悲歌)	희명	경덕왕 (8세기)	희명이 눈먼 아들을 위하여 천수대비 앞에 나아가 부른 노래. (<도천수관음가>, <맹아득안가>라고도 함.)
우적가 (遇賊歌)	영재	원성왕 (8세기)	영재가 대현령에서 도둑들을 만나 회개시켰다는 설도의 노래.
보현십원가 (普賢十願歌)	균여대사	고려 초	보현보살의 열 가지 소원을 노래한 것으로,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펴기 위해 지은 노래.

### ★ 10구체의 대표 작품

달이 어찌서	月下伊底亦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西方念丁去賜里遣
무량수불 전에	無量壽佛前乃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두 손 곧추 모아	兩手集刀花乎白良
원왕생* 원왕생	願往生願往生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慕人有如白遣賜立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阿邪此身遣也置遣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四十八大願成遣賜去

- 광덕, <원왕생가(願往生歌)>

\* 원왕생: 부처의 구원을 받아 극락으로 가기를 바람.

THEME 5 ' 경기체가

1. 경기체가의 개념

- ① 정치적 혼란기의 문인들은 한자 어휘의 나열과 이두식 후렴구로 그들의 의식 세계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경기체가.
- ② 형식은 속요를 모방하면서 내용은 사대부의 삶을 소개한 특이한 형태의 문학.

2. 경기체가 특징

- ① 경기체가의 형식은 분절체(분연체), 연장체, 3,3,4조의 3음보율이 기본.
- ② 매 장은 다시 전후 양절로 나뉘어 전절(=전대절)은 길고, 후절(=후소절)은 짧으며, 3음절과 4음절로 되어 있다.
- ③ 전 대절 : 3. 3. 4 / 3. 3. 3 / 4. 4. 4  
 爲 2(4) 景幾何如  
 후 소절 : 4. 4 爲 2(4) 景幾何如
- ④ 후렴구는 주로 '경(景) 그 멋더흐니잇고' 또는 '경기하여(景幾何如)'로 되어 있다.
- ⑤ 풍류적이고 향락적이면서도 사대부들의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과시하였다.
- ⑥ 작자는 대부분 특권층인 문인 사대부이다.
- ⑦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의 기원이다.
- ⑧ 한자 어구의 나열, 부분적으로 이두를 사용하였다.

3. 경기체가 vs. 고려가요

	경기체가	고려가요
차이점	교술 양식 기록 전승 귀족의 전유물	서정 양식 구비 전승 평민 문학
공통점	3음보 형식이다. 분절체 또는 분연체이다. 후렴구가 있다.	

4. 주요 작품

작품	작자	연대	내용 및 특징
한림별곡	한림제유	고종 (13세기)	무신 집권하에서 문인들의 향락적, 유흥적 생활 감정을 읊은 노래. 시부, 서적, 명필, 명주, 화훼, 음악, 누각, 추천을 소재로 함. 전 8장.
관동별곡	안축	충숙왕 (14세기)	작자가 강원도 순찰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동 지방의 절경을 보고 읊은 노래. 전 8장.
죽계별곡	안축	충숙왕 (14세기)	작자의 고향인 풍기 땅 순흥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읊은 노래. 전 5장.

- ① 고려 시대: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 ① 조선 시대: <상대별곡>, <화산별곡>, <불우현곡>, <화전별곡>, <독락팔곡>, <도동곡>

★ 대표 작품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육)  
 원순문 인노시 공노스육  
**현대역**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육변려문,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이정언 진한임 쌍운주필)  
 니정언 딴한림 상운주필  
**현대역**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을 맞추어 써 내려간 글,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충기대책 광균경의 양경시부)  
**현대역**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해의(解義), 김양경의 시와 부(賦)  
 위 詩場(시장) ㅅ景(경) 그 멋더흐니잇고  
**현대역** 아,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굉장하다)  
 葉(엽) 琴學士(금학사)의 玉芽門生 琴學士(옥순문생 금학사)의 玉芽門生(옥순문생)  
**현대역**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1장)  
**현대역** 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 1. 고전 갈래

## THEME 6 '고려 가요(속요)

### 1. 고려 가요의 개념

고려 시대의 시가 가운데 민요에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연향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색하고 개작한 시가. 구전되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따위의 악서에 정착되었다.

### 2. 고려 가요의 형식

- ① 대부분 분절식(주로 3/3/2조, 또는 3/4/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음보)
- ②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다. (연장체라는 설명으로도 쓴다.)
- ③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도 있다.
  - 예 정과정, 사모곡
- ④ 후렴구와 조흥구가 발달되어 있다.

### 3. 고려 가요의 내용과 주제

- ① 이별: 〈서경별곡〉, 〈가시리〉
- ② 연모, 연군: 〈동동〉
- ③ 효: 〈사모곡〉, 〈상저가〉
- ④ 지조: 〈정석가〉
- ⑤ 주술: 〈처용가〉
- ⑥ 삶의 고뇌: 〈청산별곡〉
- ⑦ 남녀 간의 사랑: 〈쌍화점〉, 〈만전춘별사〉, 〈이상곡〉

### 4. 고려 가요 수록 문헌

- ① 악학궤범: 4편 (처용가, 동동, 정과정곡, 백제가요(정읍사))
- ② 악장가사: 8편 (사모곡, 이상곡, 서경별곡, 가시리, 쌍화점, 만전춘별사, 정석가, 청산별곡)
- ③ 시용향악보: 2편 (상저가, 유구곡)

### 5. 고려 가요의 문학사적 의의

- ① 소박함, 꾸밈없는 생활 정서 표현.
- ② 경쾌한 리듬을 살리는 기교.
- ③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이자 구비전승 된 작품.

### 6. 향가계 가요(=여요(고려가요의 준말))

- ① 도이장가: 8구체 향가에 가까움.
- ② 정과정곡: 고려 가요에 가까움.

작품	작자	연대	내용
도이장가 (悼二將歌)	예종	예종 15년 (1120)	서경에서 행해진 팔관회에서 국초 공신 김락, 신승겸 두 장군의 덕을 찬양한 노래.

출전: 평상 신씨 장절공유사  
형식: 8구체 단연시  
특징: 향찰로 표기, 향가계 가요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정과정곡 (鄭瓜亭曲)	정서	의종 20년 (1170)	인종의 총신으로, 의종 즉위 후 주의의 참소로 동래에 귀양을 가 있던 정서가 임금의 부름이 없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노래.

출전: 악학궤범  
형식: 10구체 단연시  
특징: 향가계 가요, '삼진작' (<정과정> 가운데 가장 빠른 곡조란 의미)

### 7. 주요 작품

#### 1) 월령체: 1작품

작품	형식	출전	내용
동동 (動動)	13연 월령체	악학궤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사모의 정한을 월령체로 읊은 노래.

특징: 달거리 노래의 효시

#### 2) 분절체: 6작품

작품	형식	출전	내용
서경별곡 (西京別曲)	3연 분절체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서경에서 임과 이별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읊은 노래. 남녀상열지사로 지목되어 삭제되기도 함.

특징: 대동강변에서의 이별 → 정치상의 <송인>과 연관.

작품	형식	출전	내용
가시리	4연 분절체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임과 이별한 여인의 슬픔을 읊은 노래, 이별의 정한이 드러남. '귀호곡'이라고도 함.

특징: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연결됨.

작품	형식	출전	내용
쌍화점 (雙花店)	4연 분절체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읊은 노래. 적나라한 애정의 표현.

특징: 남녀상열지사



만전춘별사 (滿殿春別詞)	5연 분절체	악장가사	남녀 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읊은 노래. ('만전춘'이라고도 함.)
------------------	-----------	------	--------------------------------------

특징: 시조의 형식과 유사함. 남녀상열지사

정석가 (鄭石歌)	6연 분절체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태평성대를 칭송하고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읊은 노래.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함.
--------------	-----------	-------------------	---

특징: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임에 대한 사랑 의지 강조.

청산별곡 (靑山別曲)	8연 분절체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 인생의 안식처를 찾으려는 소망을 읊은 노래.
----------------	-----------	-------------------	--

특징: 생의 안식처 모색, 비애의 제념석 수용.

3) 단연시: 5작품

작품	형식	출전	내용
사모곡 (思母曲)	단연시	악장 가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닮과 호미의 날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간절함을 읊은 노래.

특징: 곡조명은 '엇노리', 부전 가요 '목주가'와 연관이 있음.

상저가 (相杵歌)	단연시	시용향 악보	방아를 짚으면서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 소박한 효심이 드러남.
--------------	-----	-----------	------------------------------------

특징: 노동요, 백결 선생의 '대악'과 연관이 있음.

이상곡 (履霜曲)	단연시	악장 가사	여원 임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적 빈민의 갈등을 읊은 노래.
--------------	-----	----------	----------------------------------

특징: 남녀상열지사

처용가 (處容歌)	단연시	악학 괘범	처용이 역신을 쫓아내는 내 용으로 처용무를 추면서 함께 불렀다고 전해지는 노래.
--------------	-----	----------	--

특징: 향가인 '처용가'를 계승

유구곡 (維鳩曲)	단연시	시용향 악보	비둘기를 빌려 연정을 풍자적으로 읊은 노래.
--------------	-----	-----------	--------------------------

특징: 예종의 '별곡조'와 유사함. 풍자적 성격을 지님.

★ 대표 작품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1연>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넬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2연>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3연>

이렁공 더렁공 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시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4연>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5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6연>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깊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7연>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밋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8연>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1. 고전 갈래

## THEME 7 ' 한문학

### 1. 한시의 형식

- ① 오언: 다섯 자가 1구를 이루는 시의 형식.
- ② 칠언: 일곱 자가 1구를 이루는 시의 형식.
- ③ 절구(絶句): 한 수(首)가 4구로 이루어지는 시의 형식.
- ④ 율시(律詩): 한 수가 8구로 이루어지는 시의 형식.

### 2. 절구

- ① 시의 한 구(句 1행)가 5자, 또는 7자로 이루어진 4구, 곧 4행으로 이루어진 시를 말한다.
- ② 절구는 오언 절구(五言絶句)와 칠언 절구(七言絶句)로 나뉜다.
- ③ <오언 절구> 한 구가 5자인 4구(행)로 이루어진 한시이다.
  - OOOO△……기구(起句)
  - OOOO◎……승구(承句)
  - OOOO△……전구(轉句)
  - OOOO◎……결구(結句)

※ 위의 표에서 O표는 보통 한자가 놓이는 자리, ◎표는 운자(韻字), 곧 압운(押韻: 운자를 놓음)하는 자리이며, △표는 운자가 놓일 수도 있고 운자가 아닌 한자를 쓸 수도 있는 자리임을 나타낸다.

- ④ <칠언 절구> 한 구가 7자인 4구(행)로 이루어진 한시이다.
  - OOOOOO◎……기구(起句)
  - OOOOOO◎……승구(承句)
  - OOOOOO○……전구(轉句)
  - OOOOOO◎……결구(結句)

※ O표는 보통 한자가 놓이는 자리, ◎표는 운자, 곧 압운하는 자리이다.

### 3. 율시

- ① 한 구(句 1행)가 5자, 또는 7자로 이루어진 8구, 곧 8행으로 이루어진 시를 말한다.
- ② 율시도 절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언 율시(五言律詩)와 칠언 율시(七言律詩)로 나뉜다.
- ③ <오언 율시> 한 구가 5자인 8구(행)로 이루어진 한시이다.
  - OOOO◎……제1구 } 두련(頭聯); 기(起)
  - OOOO◎……제2구 }
  - OOOO○……제3구 } 함련(頷聯); 승(承)
  - OOOO◎……제4구 }
  - OOOO○……제5구 } 경련(頸聯); 전(轉)
  - OOOO◎……제6구 }
  - OOOO○……제7구 } 미련(尾聯); 결(結)
  - OOOO◎……제8구 }

※ ◎표는 운자가 놓이는 자리이다. 율시는 2구씩 짝지어 4련으로 되는데, 각 연의 명칭을 두련·함련·경련·미련이라고 한다. 이것은 동물의 머리·턱·목·꼬리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칠언 율시> 한 구가 7자인 8구(행)로 이루어진 한시이다.
  - OOOOOO◎……제1구 } 두련(頭聯); 기(起)
  - OOOOOO◎……제2구 }
  - OOOOOO○……제3구 } 함련(頷聯); 승(承)
  - OOOOOO◎……제4구 }
  - OOOOOO○……제5구 } 경련(頸聯); 전(轉)
  - OOOOOO◎……제6구 }
  - OOOOOO○……제7구 } 미련(尾聯); 결(結)
  - OOOOOO◎……제8구 }

## 4. 작품

## 1) 고대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여수장우 중문시	을지 문덕	고구려 영양왕	살수대첩 때 수나라의 장수 우중 문을 비웃은 오언 고시로, 고구 려인의 기상이 엿보임.
치당 태평송	진덕 여 왕	신라 진덕 여 왕	진덕 여왕이 당나라 태종에게 바친 당나라의 태평을 가린 시 로, 굴욕적인 외교의 대표적인 작품.
화왕계	설총	신라 신문왕	꽃을 의인화하여 정치를 풍자한 단편 산문. 가전체의 효시. 최초 의 개인 창작 설화.
왕오천축 국전	혜초	신라 성덕왕	혜초가 인도의 다섯 나라를 여 행하며 견문한 것을 기록한 기행 문. 중국 돈황에서 발견됨.
토황 소격문	최치원	신라 현강왕	작가가 당에 가 있을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고변의 막하에서 황소의 항복을 권유한 글.
계원필경	최치원	신라 현강왕	신라 때의 문신 최치원의 시문 집. 사료번역체의 명문으로, 한 시문에 큰 영향을 끼침. 20권 4 책으로 엮은 찬집.

## 2) 고려시대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산거 (5언 절구)	이인로	고려	산 속에 은거하며, 유심한 풍경 을 읊은 오언 절구
송인 (7언 절구)	정지상	고려 인종	대동강 남포에서의 이별의 정경 을 읊은 칠언 절구
사리화 (7언 절구)	이제현	고려	당시 권력자들의 농민 수탈을 상징적으로 비판한 칠언 절구
부벽루 (5언 율시)	이색	고려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 나면서 감회를 읊은 오언 율시
제승사 (7언 절구)	이승인	고려	산사의 한가로운 모습을 가볍게 그린 칠언 절구

## ★ 7언 절구의 대표 작품

비 갠 긴 독엔 풀빛이 짙은데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그대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리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건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하는 것을  
別淚年年添綠波(별누년년첨녹파)  
- 정지상, <송인(送人)>

## ★ 5언 절구의 대표 작품

열다섯 어여쁜 아가씨  
十五越溪女(십오월계녀)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지고는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  
돌아와서 겹문을 닫고는  
歸來掩重門(귀내엄중문)  
배꽃에 걸린 달 향해 눈물 흘리네  
泣向梨花月(읍향리화월)  
- 임제, <무어별(無語別)>

# 1. 고전 갈래

## THEME 8 '악장'

### 1. 악장의 개념

- ① 원래 가곡을 의미하는 악부의 별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 왕의 행차나 종묘 제향 등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로서, 조선 건국 및 문물제도를 찬양하는 송축가를 말한다.
- ② 경기체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싹튼 귀족 계층의 문학이다. (경기체가 → 악장)

### 2. 악장의 문학적 특징

- ① 악장은 일정한 틀은 없으나 초기에는 중국 고시체의 형태를 취한 것이 많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약간의 국어가 섞인 현토체가 나타나다가, 후에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독자적인 정형성을 띤 신체 형식이 등장하였다.
- ② 신체 형식(악장의 형식을 의미)은 4구 2절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 3. 악장의 종류

- ① 악장은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이다.
- ② 한시체, 경기체가체, 속요체 등 기존의 양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 ③ 나중에 신체(악장체)라고 하는 전형적인 양식을 개발하기도 했다.

### 4. 주요 작품

#### 1) 신체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용비어천가	정인지 등	세종 29년 (1447)	천명에 의한 건국의 정당성 및 육조의 업적 찬양, 후왕에 대한 권계,
월인천강지곡	세종	세종 31년 (1449)	수양 대군의 석보상절을 보고 화답하여 지은 불찬가,

#### 2) 속요체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신도가	정도전	태조 3년	새 도읍지 찬양, 태조의 성덕 칭송,
유림가	미상	세종	조선 창업 송축, 유교 정치 이상 피력,
감군은	상진	명종	임금의 은덕 칭송,

#### 3) 경기체가체

작품	작자	연대	내용
상대별곡	권근	세종 1년	조선의 문물제도 찬양,
화산별곡	변계량	세종 7년	조선 창업의 예찬,
오륜가	미상	세종	오륜에 대한 송가,

#### 4) 한시체

작품	작자	연대	내용
납씨가	정도전	태조 2년	태조의 무공 예찬.
문덕곡	정도전	태조 2년	태조의 문덕 예찬.
정동방곡	정도전	태조 2년	위화도 회군의 결단 찬양.
봉황음	윤희	세종	조선의 문물제도에 대한 찬양 및 축수.

### ★ 대표 작품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뭇씨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ㄱ마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현대역**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THEME 9 ' 시조

## 1. 시조의 개념

- ①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고려 말엽에 완성된 형태로서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창작되고 불리는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을 말한다.

## 2. 시조의 명칭

- ① 원래 장가의 대립 개념인 단가라 불려, 장가에 비해 짧은 형식의 노래라는 뜻으로 호칭되었다.  
 ② 영조 때 가객 이세춘이 '시절가조'라는 곡조를 만든 후부터 '시조라' 부르게 되었다.

## 3. 시조의 형식

- ①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이다.  
 ② 종장의 첫 어절(3음절)은 대체로 지켜졌다.  
 ③ 종장의 둘째 어절은 5음절 이상이어야 한다.  
 ④ 나머지 구는 한두 음절의 가감이 허용되었다.

## 4. 시조의 내용

- ① 유교적 충의 사상  
 ② 자연  
 ③ 발랄한 애정 표현  
 ④ 서민의 애환과 민중의 현실상

## 5. 시조의 종류

- ① 평시조: 시조의 기본 형식에 맞는 시조를 말한다. 3장 6구, 총 글자 수 45자 안팎의 구성을 가진 정형시이다. 매구의 글자 수는 7자 내지 8자로 된 형태의 시조를 말한다.  
 ② 연시조: 하나의 제목 아래 평시조가 2수 이상 연결된 시조를 말한다.  
 ③ 엇시조: 평시조에 일차적인 파격을 시도한 것이다.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구절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형태의 시조를 말한다. 어느 한 구절이라 함은 보통 초장의 첫구나 둘째구가 되는 일이 많고, 그 글자 수는 10자 이상 늘어난 것을 말한다.  
 ④ 사설시조: 평시조의 정형에서 두 구절 이상이 각각 그 글자 수가 10자 이상으로 파격되는 시조를 말한다. 이러한 파격은 대개가 중장에서 일어나나, 3장이 다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 ★ 평시조의 대표 작품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 흐되 인걸(人僕)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쏜이런가 흐노라  
 - 길재

## ★ 사설 시조의 대표 작품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주\* 세슬장주\* ㄱ로다지\* 여다지\*에 암들져귀 수  
 돌져귀\* 크나큰 장도리\*로 쭉쭉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  
 고져  
 있다감 하 답답홀 직 여다져나 불가 흐노라  
 - 작자 미상

\* 고모장주: 고무래 들창.

\* 세슬장주: 문살이 가는 장지문.

\* ㄱ로다지: 옆으로 밀면서 여는 문.

\* 여다지: 안팎으로 밀거나 당겨서 여는 문.

\* 암들져귀 수돌져귀: 문설주에 박는 구멍 난 돌쩌귀와 문짝에 박는 돌쩌귀. 서로 짝을 이룸.

\* 장도리: 못을 박거나 뽑는 데 사용하는 공구.

# 1. 고전 갈래

## THEME 10 '가사'

### 1. 가사의 개념

- ① 조선 시대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4음보 연속체의 교술 시가이다.

### 2. 가사의 특징

- ① 서정성: 자신의 마음이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동 등을 노래함.
- ② 서사성: 기행 가사와 같이 이야기 구조를 가진 가사가 많았음.
- ③ 교술성: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이 많음.

### 3. 가사의 형식

- ① 3(4), 4조 4음보의 연속체이다.
- ② 정격 가사의 경우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일치 (3, 5, 4, 3)
- ③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이다. 운문의 형식에 산문적 내용을 담았다.
- ④ 작가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를 중심으로 창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평민층에까지 작자층이 확산되었다.

### 4. 가사의 마무리 부분

- ① 정격 가사: 시조의 종장 형식을 따르는 종구에서 시상을 마무리함.
- ② 변격 가사: 정격 가사와 달리 시조의 종장 형식을 따르지 않음.

### 5. 조선 전기 가사의 유형

- ① 은일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양정가>
- ② 유배 가사: 조위의 <만분가>,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 ③ 기행 가사: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 ④ 도학 가사: 이이의 <자경별곡>
- ⑤ 내방 가사: 허난설헌의 <규원가>

### 6. 대표 작품

- 1) 조선 전기
  - <상춘곡>, <만분가>, <면양정가>, <관서별곡>,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규원가> 등
- 2) 조선 후기
  - <고궁가>,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농가월령가>, <일동장유가>, <만언사>, <연행가>

### ★ 대표 작품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너실식,  
**현대역** 늘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실 때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러오니,  
**현대역**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왔다.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현대역** 국경의 요새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는가?  
 일장검(一長劍) 비기 촛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현대역** 길고 큰 일장검 비껴 차고 병선에 올랐다.  
 여기 진목(勵氣曠目) 하야 대마도(對馬島) 구어보니,  
**현대역**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뜨며 대마도를 굽어보았다.  
 바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허 있고,  
**현대역** 바람을 따르는 황색 구름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쌓여 있다.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  
**현대역**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이다.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현대역** 배 위를 돌아다니면서,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였다.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輊氏)를 애드노라,  
**현대역**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를 원망한다.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돌려시니,  
**현대역** 넓은 바다가 온 세상을 두르고 있는데,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너 사이(四夷) 엿볼넉고,  
**현대역**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개가 우리 땅을 엿볼 것인가? (배가 없었으면 오랑개가 넘볼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임.)  
 무슨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하고,  
**현대역**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ㄹ업순 큰 폐(弊) 되야,  
**현대역** 길고 오랜 세월 동안에 '배는' 끝없는 폐단이 되어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현대역** 하늘 아래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한다.  
 어즈버 썩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현대역**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비 비롯 있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현대역**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왜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비 절로 나올넉가  
**현대역** 일본 대마도에서 빈 배가 저절로 나올넉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현대역**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그렇게도 데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현대역** 바다의 섬들에 당해 내기 어려운 도둑들을 남겨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현대역**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하였는가?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현대역**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萬里長城) 높히 사고 몇 만 년(萬年)을 사도편고,  
**현대역**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는가?  
 늑딴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도다  
**현대역** 남들처럼 죽어 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 박인로, <선상탄>

## THEME 11 '잡가'

## 1. 잡가의 개념

가곡, 가사, 시조 등 지식층에서 즐기던 노래에 대하여 대중들이 즐겨 부르던 긴 노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2. 잡가의 특징

- ① 잡가의 내용이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가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 ② 서정적인 요소와 교술적인 요소를 두루 수용하고 있다.
- ③ 조선 후기 하층 계급의 전문 소리꾼이 부르던 노래.
- ③ 상층민들이 쓰는 언어(한자어)와 하층민들이 쓰는 언어(우리말)가 섞여 있다.

## 3. 작품

## 1) 경기 잡가 - 12잡가

〈소춘향가〉, 〈십장가〉, 〈형장가〉, 〈제비가〉, 〈집장가〉, 〈적벽가〉, 〈유산가〉, 〈평양가〉, 〈선유가〉, 〈월령가〉, 〈방물가〉, 〈출인가〉

## 2) 경기 잡가 - 휘모리 잡가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 등

## 3) 서도 잡가 (황해도, 평안도에서 부른 잡가)

〈수심가〉, 〈영변가〉 등

## 4) 남도 잡가 (주로 전라도에서 부른 잡가)

〈새타령〉, 〈육자배기〉 등

## THEME 12 '민요'

## 1. 민요의 개념

구비 문학의 하나로서, 한 민족 안에서 자연 발생하여 온 겨레가 즐겨 부르는 민중의 노래이다.

## 2. 민요의 특성

- ① 4음보의 연장체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 ② 삶의 애환이나 체념, 대상에 대한 해학적 관점을 표현한 것이 많다.
- ③ 부요는 전통 사회의 여성들이 겪었던 시집살이나 노동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④ 과장적 표현과 언어 유희적 기교가 두드러진다.

## 3. 민요와 다른 장르의 결합에 의한 변종의 생성

- ① 민요 + 시조: 사설시조
- ② 민요 + 가사: 잡가

## 4. 민요의 종류

노동요	농업 노동요(논매기 노래), 어업 노동요(해녀 노래) 등
의식요	세시 의식요(지신밝기 노래), 장례 의식요(달구질 노래, 상여 노래) 등
유희요	강강술래, 줄다리기 노래, 널뛰기 노래 등
비기능요	아리랑, 시집살이 노래 등